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3호 [부제 제25476호] 주제 105 (2016)년 11월 28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용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로동당 량강도위원회 위원장 리상원동지, 삼지연군위원회 위원장 리철동지가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통행한 일군들과 함께 삼지연군에 정중히 모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통상애심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면서 백두밀림에 거연히 서서 삼천리강도를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주체혁명위업의 앞길을 향도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정말 잘 형상하였다고, 야전승옷을 입으시고 안경을 끼고 계시는 모습은 우리 군대와 인민들이 늘 비움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받들어모시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는 량강도를 비롯한 온 나라 군대와 인민들의 불타는 신념과 의지, 한결같은 지향과 백옥같은 충정에 의해 우리 장군님의 동상이 삼지연군에 정중히 모셔졌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군에 모시였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만고의 향정사가 깃들어있고



총독시키자면 회관관리 운영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며 시설물들과 설비들을 예호관리하고 보수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군문화회관에서 여러가지 사회정치활동과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인민들과 청소년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다방면적인 지식과 문화적소양을 지닌 인간들로 준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문화회관관리운영에 필요한 설비들을 당에서 보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학생소년궁전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학생소년궁전의 정면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대상을 바라보시면서 궁전소조원들이 한평생 아이들을 그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신 영광의 땅에 우리 장군님의 동상을 모심으로써 천만군민의 정신적 기둥인 태양의 성지는 누리에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군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영광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잘 모시기 위한 정성사업에 총정의 마음을 바쳐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옮기시던 걸음을 거듭 멈추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보고 또 보시며 눈이 내리는구만, 장군님과 눈물속에 영결하던 날에도 눈이 내렸지, 우리 장군님께서 자신의 살붙이처럼 사랑하시던 이 땅에서 어떤 기적이 창조되는가를 보시였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감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모두 위대한 장군님을 생전처럼 받들어모시고 천지공파가 돌아치고 세상이 천만번 변한다고 해도 우리 장군님께서 한평생 높이 추켜 드시었던 혁명의 붉은기를 절대로 놓지 말고 장군님의 넋대로 이 땅에 부강번영하는 인민의 락원, 사회주의 강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우자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군문화회관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3년 11월 삼지연군문화회관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인민들이 마음껏 문화정서생활을 향유할수 있도록 훌륭한 조건을 더 잘 마련해주자고 하시면서 군문화회관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꾸리는

데서 나서는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618 건설혁명적대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삼지연군문화회관이 예술공연, 회의, 자연과 사회에 대한 과학 지식보급사업 등을 원만히 진행할수 있게 훌륭히 꾸려진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관람석 의자에 앉으시어 군예술소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가, 영화상영은 어떻게 하는가, 사진전시회는 어떤 형식으로 하는가 등 문화회관의 관리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토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군문화회관을 리용하여 인민들에게 충분한 문화정서생활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문화적수요를

도록 사랑하시던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환하신 영상을 늘 비울수 있게 정중히 잘 모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보여주는 사적자료들은 대를 두고 길이 전해가야 할 귀중한 재보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는것과 함께 훌륭한 재능동아들을 더 많이 키워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길이 빛내여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삼지연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수학교육소조실, 자동차소조실, 체육관, 화술소조실, 대중정치활동실, 정보기술소조실, 미술소조실, 민족기악소조실, 극장을 비롯한 공전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학생소년들이 진행하는 여러가지 소조활동을 환한 미소속에 보아주시며 트랙도르연습기재를 능숙하게 다루고 다매체편집물도 척척 만든다고, 여러가지 악기를 가지고 진행하는 연주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른다고, 그림습씨도 여간이 아니며 붓다루기도 잘한다고 칭찬해주시면서 시간을 아껴가며 열심히 배워 사회주의조건을 떠메고나갈 역군이 되라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백두의 후한속에서도 따뜻한 소조실에서 학생소년들이 마음껏 소조활동을 벌리고있다고 북내만족해하시면서 삼지연 학생소년궁전에서 울리는 아이들의 밝고 명랑한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음소리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는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라고, 삼지연 학생소년궁전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아이들의 궁전으로 더 잘 꾸려주자고 하시면서 대를 이어 길이 전래갈 은정깊은 배려도 돌려주시고 궁전의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들리시는 소조실들마다에서 <아버지님수님! 뵙고싶습니다.>고 목메여 부르며 저저마다 품에 안겨드는 소조실들에게 나도 너희들이 보고싶어 찾아왔다고 정겹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자애로운 한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꿈만 같은 행복에 겨워 울고웃는

학생소년들에게 올면서 찍으면 사진이 잘되지 않아, 우리 웃으며 찍자, 사진을 인차 보내주마라고 따듯이 달래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친어버이사랑속에 세상천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뜨거운 화폭이 펼쳐져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진을 찍지 못한 학생소년들과 교직원들이 있겠는데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고 하시면서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궁전의 일군들, 교직원들, 소조원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삼지연 혁명전적지탑사숙영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2013년 11월 삼지연혁명전적지탑사숙영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직접 위치도 잡아주시고 여러차례나 찾아오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자육이 어려웠는 숙영소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킬때 대한 파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현지만남을 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광장도

안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무락치는 예로와 난관을 이겨내며 탑사숙영소를 훌륭히 개건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시된 사적자료뿐만 보아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업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삼지연 혁명전적지탑사숙영소의 종업원들과 이곳을 리용하는 탑사자들속에서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통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학생 각, 소년단각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정형과 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백두의 원시림의 자연풍지와 지대적특성에 어울리게 훌륭히 개건된 탑사숙영소를 바라보시면서 3년동안에 몰라

보게 달라졌다고, 건물의 외벽을 나무로 처리하니 백두산일대의 자연풍지와 잘 어울린다고, 숙영소의 방들과 식당도 잘 꾸리였다고 뜻내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에서 삼지연혁명전적지탑사숙영소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혁명전적지탑사숙영소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 잘 갖추는 사업을 중시하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 세대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즐기치게 하며 그들을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하여 한몸 다 바치는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기 위해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삼지연 혁명전적지탑사숙영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맡겨진 본분을 다함으로써 탑사생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만고의 항쟁사와 우리 당의 만년초석인 백두의 혁명정신을 심장깊이 새기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탑사자들의 교양사업에 필요한 수단들을 당에서 직접 보내주시겠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자봉체육단 스키선수들의 훈련을

보시였다.

훈련에 앞서 선수들을 몸가짜이 부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스키를 배운지 얼마나 되는가, 스키복과 기재들이 좋은가를 하나하나 물어주시면서 전국적인 스키경기에서 늘 1등을 한다는데 앞으로 백두산의 물과 공기를 마시며 훈련하는 선수들답게 안자리를 양보하지 말라고 고무격려 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고속주로서 용맹스럽게 활강하며 높은 기교동작을 수행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면서 멋있다고, 가슴이 후련하도록 장쾌하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광강도를 비롯한 눈이 많이 내리는 지대들에서 청소년들이 스키를 많이 타게 하는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스키는 체력단련에도 좋고

대담성과 용감성을 키우주는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동행한 책임일군들에게 이번에도 삼지연군을 돌아보니 위대한 장군님의 교양군인 삼지연군을 혁명의 성지답게 보다 훌륭히 꾸려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고 하시면서 삼지연군을 혁명전통교양의 대로전박물관으로, 김자농사의 본보기단위로, 농촌결리의 총합적기계화를 완벽하게 실현한 표준모범단위로 꾸릴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방도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삼지연군 읍지구를 혁명전통교양의 거점답게 더 잘 꾸리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역사와 투쟁업적이 깃들여 있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역사주의원칙에서 보다 정중히 보존관리하고 과학화수준을 높여 우리 혁명의 만년체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움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3 면으로 계속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2 면에서 계속

삼지연군에 답사자들을 위한 숙박, 상업봉사, 문화오락시설들과 려판,

살림집들을 고산지대 특유의 향취가 풍기게 더 많이 건설하여 읍지구를 문명 한 산간도시의 전형으로 훌륭히 꾸리며 예산-삼지연 넓은칠길건설을 완공

하고 삼지연군안의 도로들을 산간지대의 특성에 맞게 신설, 개건보수하며 비행장과 철도역도 훌륭히 건설하자고 말씀하시였다.

삼지연군 감자밭면적을 늘이고 감자농사를 과학화, 집약화하여 한해에 수만t 이상 생산하는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로 꾸리며 들쪽밭을 더 조성

하고 감지가루공장, 남새가공공장, 백두산샘물공장을 건설하는것을 비롯하여 삼지연군의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삼지연군을 우리 나라에서 제일 잘사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군꾸리기를 어떻게 하나 3~4년안에 끝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삼지연군꾸리기를 위한 강력한 건설부대를 새로 조직하여준 당의 의도를 똑똑히 명심하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대진군속도를 창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이며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인 삼지연군을 훌륭히 꾸리는것은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들의 마땅한 도리이며 혁명적의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묵숨보다 더 귀중히 간직하고 혁명의 고향집이 자리잡고있는 삼지연군이 이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본보기군, 표준군, 모범군으로 특색있게 꾸리기 위한 섬스러운 투쟁에 떨쳐나서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삼지연군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불철주야의 현지지도강행군 길에서 자기들의 고장에 또다시 찾아오시여 군이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살가 드리면서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에서 사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불라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단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공 동 결 정

쿠바혁명의 최고지도자이며 우리 인민의 친근한 친구인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는 2016년 11월 25일 90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하였다.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는 서반구에서 처음으로 인민이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하고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온 생애를 바친 쿠바인민의 탁월한 지도자였으며 반제국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정의의 위업에 특출한 공헌을 한 저명한 정치 활동가였다.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서거는 쿠바혁명과 공정의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두 나라 인민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손실로 된다.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주제 105(2016)년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을 애도기간으로 선포한다.
2. 이 기간 동안 영구기관장 사별과 제정된 장소들에 조기를 쏜다.

주제105(2016)년 11월 27일  
별 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주제 105(2016)년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을 애도기간으로 선포한다.
2. 이 기간 동안 영구기관장 사별과 제정된 장소들에 조기를 쏜다.

주제105(2016)년 11월 27일  
별 양

#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력력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는 1926년 8월 13일 쿠바의 오리엔테주에서 탄생하였다.

그는 한미학교에 다니면서 중학교를 다니고 1945년에 아바나종합대학에 입학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의 자격을 받았다.

1947년부터 1952년까지 쿠바외에서 독재정권의 폭행과 부패상을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하였다.

1953년 7월 반독재사상을 가진 165명의 남녀 청년학생들과 함께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는 바르세로나에서 군사요충지의 하나인 몬카다병원에 대한 습격전투를 진행하여 무장투쟁의 봉화를 지피었다.

그는 첫 무장투쟁에서 실패하여 100여명의 무장투쟁성원들과 함께 적들에게 체포되었으나 쿠바의 베노스성(오늘날의 상인성)에서 감옥생활을 하였다.

1955년 5월 석방된후 《7월28일운동》을 조직하였으며 1955년 7월에 친구들과 함께 데리프에 망명하여 유격투쟁을 준비하였다.

1956년 12월 데리프에서 82명의 무장인원들과 함께 《그라마》호를 타고 쿠바의 오리엔테주에 상륙하였으며 그후 세레라 마에스트라산에 근거지를 두고 무장투쟁을 벌였다.

그는 1959년 1월 마침내 바르세로나독재정권을 뒤집어 없애고 쿠바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였다.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는 1959년 2월에 혁명정부 수장으로 임명되었으며 1965년 10월부터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로서



제1비서로 사업하였다.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는 쿠바공산당 제1차대회부터 제5차대회까지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제1비서로 선거되어 사업하였다.

그는 쿠바공화국 인민주권인민회의에서 여러 차례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장으로 선거되어 사업하였다.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는 건강관계로 2008년 2월 인민주권인민회의 제7기 제1차 회의에서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직을, 2011년 4월에는 당 제6차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의 제1비서직을 그만두고 불활동용 하였다.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는 1986년 3월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와 뜨겁게 상봉하였으며 만재만리투쟁의 전선에서 싸우는 우리 나라 인민들 사이의 전우적우의와 친선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커다란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 인민의 친근한 벗이며 오랜 혁명전우인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 칭호를 비롯하여 우리 나라의 여러 훈장들을 수여받았다.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는 2016년 11월 25일 10시 29분 애석하게도 서거하였다.

반제국주의,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 50주년을 기념하는 데에 공헌한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업적이 빛났었다.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박봉주내각총리가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쿠바공화국 내각 수상에게 조전을 보내었다

아름다운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쿠바공화국 내각 수상을

# 라울 카스트로 루스동지

우리는 쿠바인민의 탁월한 영도자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가 서거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당심과 망신을 통하여 고인의 유가족들과 쿠바인민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지만 그가 쿠바혁명과 우리 두 나라사이의 형제적친선관계에 남긴 업적은 길이 남아있을것입니다.

우리는 쿠바당과 정부와 인민이 오늘의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사회주의와 혁명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계속 훌륭한 성과를 거두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박봉주

주제105(2016)년 11월 27일

# 우리 식 이중금속단자의 국산화 실현

김책공업종합대학 재료공학부에서

최근 김책공업종합대학 재료공학부에서 전력공업부문에 질서 있게 필요한 우리 식의 이중금속단자를 개발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재료공학부 용접공학과에서는 이중금속단자의 국산화 실현을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연구사업을 힘차게 벌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재료공학부 용접공학과에서는 이중금속단자의 국산화 실현을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연구사업을 힘차게 벌였다.

이런 개발을 위하여 우리 식의 이중금속단자는 값싼 마찰교반용접설비가 없는 생산할 수 없다 하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원가를 적게 들이면서도 일관성 있게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지난 시기 수업에 의존하던 이중금속단자는 달리 접합면적과 용접부의 결함을 줄이고 수율도 높여주는 방법으로 개발하였다.

이중금속단자를 생산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는 가치 있는 마찰교반용접공구의 특성을 분석하여 국산화할 수 있는 전방도 열

# 평양제1백화점 창립 7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평양제1백화점 창립 70돐 기념보고회가 27일에 진행되었다.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 김수길 동지와 백화점인원들,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평양제1백화점 종업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축하문을 김수길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평양제1백화점은 우리 인민들에게 갖가지 질 좋은 상품을 차에지게 하려고 온갖 심혈을 기울인 위대한 수평님들의 따스로운 손길과 불멸의 영도업적이 깃들여있는 대구모양봉봉사기이며 나라의 경제발전전진모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인민소비품전시장, 경공업전시관의 시공과 역할을 다해나갔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셨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건설의 첫 시기인 주제 35(1946)년 11월 28일 중앙국영백화점을 찾으시어 인민을 위한 상업시설활동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세심한 보살피심 속에 자랑할 만한 길을 걸어오면서 당의 인민적인 상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맡겨진 혁명업무를 충실히 수행한데 대하여 축하문을 강조하였다.

축하문은 백화점의 종업원들과 일꾼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쾌하고 정중한 상봉들을 지표로 확보하여 인민들의 생활편의를 보장하는데서 성과를 이룩하고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종업원들과 일꾼들이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그 어떤 조건에서든 상업시설활동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단련의 준비를 갖추었으며 70일전후와 200일전후의 불길들이던 년간생활을 앞당겨 전수하고 북부피해복구전선을 중심현으로 지원하여 전하위국의 기적을 창조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고 축하문을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평양제1백화점

# 박봉주 총리

홍남비료련합기업소, 2.8비료련합기업소 현지료해

박봉주총리가 홍남비료련합기업소, 2.8비료련합기업소 현지료해



우리는 나라 특명전권대사 아르메니아 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김정준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22일 예르주 사르끼얀 아르메니아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신임장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세르주 사르끼얀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 위원장

# 백옥같은 충정의 마음을 안고

안익혁 혁명가유자녀들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여왔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영도를 받들어 원군의 길, 애국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그리고 새 세대에게 백두의 혁명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선전활동도 자기들 스스로 담담공공으로 받아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뎠던 진행해오셨다.

백두의 혁명가유자녀들은 선전활동도 자기들 스스로 담담공공으로 받아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뎠던 진행해오셨다.

백두의 혁명가유자녀들은 선전활동도 자기들 스스로 담담공공으로 받아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뎠던 진행해오셨다.

백두의 혁명가유자녀들은 선전활동도 자기들 스스로 담담공공으로 받아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뎠던 진행해오셨다.

# 30여년을 한 모습으로

불평을 내기 위하여 거울인 수고는 한두마디의 말로 다 이야기할 수 없다.

그는 적역안들을 이끌어 패지와 염소, 토끼, 개사니, 오리, 닭을 많이 길러 농장원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였으며 많은 고기와 달걀을 생산하여 탁아소와 유치원에 보내주었다.

하지만 그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았다.

다른 덕이작품에 비해 정보당







